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4년도 포어 ◎

보혜사 성령이여 깨끗케 하소서(사51:10)

◎ 행동지침 ◎

- 1. 바른생활
- 2. 바른교회
- 3. 바른국가

주 발행인 : 이 중 운 주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그리스도는 영원한 평화의 왕-

(요 20:19)



이중운 목사(서울교회 담임)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라는 그의 말씀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아침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온 교회와 성도들과 이 민족 국가위에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인류 역사의 방향을 바꾸고 삶의 가치관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골고다 언덕 높은 곳, 십자가 위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제자들은 실의와 허탈함에 몸을 떨었습니다. 주님은 다시 살아나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주님의 부활이 좀처럼 믿기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시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을 다시 만난 제자들은 집단적 공포에서 해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의 감격을 맛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수한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힌 채 살고 있습니다. 전쟁과 질병과 실직과 무너진 가정 속에서 나에게는 참 평안이 없다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여건과 환경이 개선된다고 해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주지는 않습니다. 실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절대적이고 영원하신 화평의 왕,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양심에 평안을 부여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 거기서부터 진정한 평화가 시작됩니다.

한반도의 허리가 잘린지 반세기가 넘는 지금 이 땅에는 아직도 민족적 평화가 없습니다. 남북의 분단뿐만 아니라 동서간 반목의 갈등까지 팽배해진 가운데 가진 자와 못가진 자, 세대 간 반목과 죄와 우의 이념의 골은 깊어만 가 우리사회에는 참된 평화가 사라진지 이미 오래입니다. 세상의 지도자와 모사들의 그 어떤 모략도 이 땅을 진정한 평화로 이끌지 못할 것입니다. 누가 반목하고 갈등하며 나누어져버린 이 땅을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화평케 하시는 이는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분의 지배를 받고 그분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화평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다시 사셨다

오늘 | I, II, III부 예배 시 성찬식, 찬양예배 시 찬양으로 감사

하나님은 죄인의 과수되어 도무지 희망이 없이 저옥에 갈 수 밖에 없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 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아무런 말도 없이 묵묵히 사나운로 마병정들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마침내 죽기까지 인간을 향하신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리고 삼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는 마침내 구원의 소망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거저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오늘은 이 크나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지키며 주님의 삶과 피를 기념하기 위해 오늘 주일 I, II, III부 예배 시 성찬예식을 거행한다. 우리는 이 성찬을 깊은 회개와 감사의 기도로 받고 세상에 나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여야 하겠다.

또한 찬양예배 시간에는 임마누엘 찬양대가 준비한 조셉 마틴의 칸타타 '그림자들의 노래'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된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한다.

제12차 김치 신학세미나 준비위원 조직 확정

제12차 김치 신학세미나가 오는 5월 24일(월)부터 6월 2일(화)까지 인도차이나 반도 5개국(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라오스) 교역자 30명을 초청한 가운데 개최된다.

이제는 이번 신학세미나를 은혜 중에 준비하여 참석하시는 모든 이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자국복음화에 앞장 서며 그들의 조국에 복음에 뿌리를 내리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운영조직을 분과별로 확정하였다.

각 분과별 운영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제12차 김치 신학세미나 준비위원회(위원장 오정수 장
위원장: 오정수 장로 지도: 이성득 목사

분과	부장	차장	실행위원
기획/진행	우지원 집사	차도훈/이종창	홍순석 이명홍 이강진 한광마 유기찬 강한중 이병현 이수련
의전/안내	오광환 집사	이양철/이계홍	최용걸 유관모 김성환 최광성 장덕 김경호 홍광표 조동원 유영우 이마중 현기욱 나연신 재경희 박순복 권종희 김숙자
시설/미디어	조철기 집사	오유식/장양일	멀티미디어 단원 외
재정	김대호 장로	탁경준/양춘경	교육화 오행철 송인권 이동만 김중근 장두현 원용범 고석채 홍일성 권혁우 김훈 이경진 이성근 윤영근 이선우 이진구 박찬성
홍보	김규태 집사	김종윤/김시환	오승민 정인주 유영준 진교남 이만구 한달전
봉사	김정희 권사	최양혜/허숙	이영희(5) 이인숙 이순희 이성에 김찬진 박이선 김혜란 박미혜 박현영 권사회 여전도회 임역원
의료	정동호 집사	하인선/정경자	안인호 이운진 김영주 박동원

예배위원 및 교회학교 교사, 70인 전도대원 추가임명

교회는 급격한 성도의 증가로 각 부서에 섬김 인원이 부족하게 되어 예배위원과 교회학교 교사 그리고 70인 전

도대원을 추가로 임명하기로 하였다. 임명받는 모든 이들은 충성하므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란다.

<예배위원>

-안내위원-

주일2부: 박병수 집사 박태선 집사
수요1부: 김규희 집사
수요2부: 장덕 집사

-헌금위원-

주일2부: 김영우 집사 김초일 집사 박선자 집사 문분순 집사
주일3부: 김정운 권사

<교회학교 교사>

-중등부-

이현숙 성도

-고등부-

김삼연 성도, 오현경 성도

-청년부-

하영숙 성도 윤종덕 집사

-사랑부-

양호선 집사

<70인 전도대 토요일 야간 전도대>

- 탐장: 최규조 집사 총무: 은기장 집사
- 전도부장: 최낙준 집사
- 부원: 주동재, 김금준, 유수진, 조현정, 신은미, 이조은
- 봉사부장: 은기장 집사
- 부원: 서경애, 최성옥, 김은태, 한대석, 백경원
- 결신부장: 손영호 집사
- 부원: 김찬진, 경은숙, 노재균, 조운정, 박지원
- 찬양부장: 이주현 성도
- 부원: 박정임

교회학교 교사 교육 및 연합기도회

4월13일(화) 오후 8시 웨스트민스터 홀
강사: 이성호 교수(연세대)

우리교회 교회학교 교사 교육 및 연합 기도회가 4월 13일(화) 오후 8시 1층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이성호 장로(연세대 교수)를 강사로 모신 가운데 열린다. 모든 교사들이 참석하여 은혜받는 시간이 되도록 한다.

초·중·고등부 노방전도

초, 중, 고등부에서는 부활주일인 오늘 부활메시지가 담긴 전도지와 예쁘게 장식한 계란을 준비하여 10시 30분부터 한티공원과 대치역에서 노방전도를 한다. 민중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과 희망의 메시지가 불신자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며 온 성도들은 기도로 밀어주시고 동참해주시기 바란다.

새 세대 학부모 교육 실시된다

4월15일 10시30분
701호와 706호

유아부에서는 유아와 미취학 아동들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바른 신앙교육을 위한 부모들의 준비를 돕기 위해 '새 세대 부모 교육'을 실시한다.

4월15일부터 6주에 걸쳐 매주 목요일 10시30분부터 701호와 706호에서 실시되며 참가비는 무료이고 참석자들에게는 점심이 제공된다.

1교구 다락방 추가 분리

1교구에 속한 다락방 식구들이 날로 증가하는 은혜를 받아 성도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목양하기 위하여 다락방을 추가로 분리 운영하기로 하였다.

다락방명	다락방장	부다락방장	비고
1-12	김정애 집사	최태경 집사	기존 다락방
1-24	정은순 집사	전인숙 집사	1-12에서 분리

Rejoice in EASTER

門

그때
 하늘
 떨어지는
 물과 피의 침묵!
 세상 이기신
 거룩한 죽음이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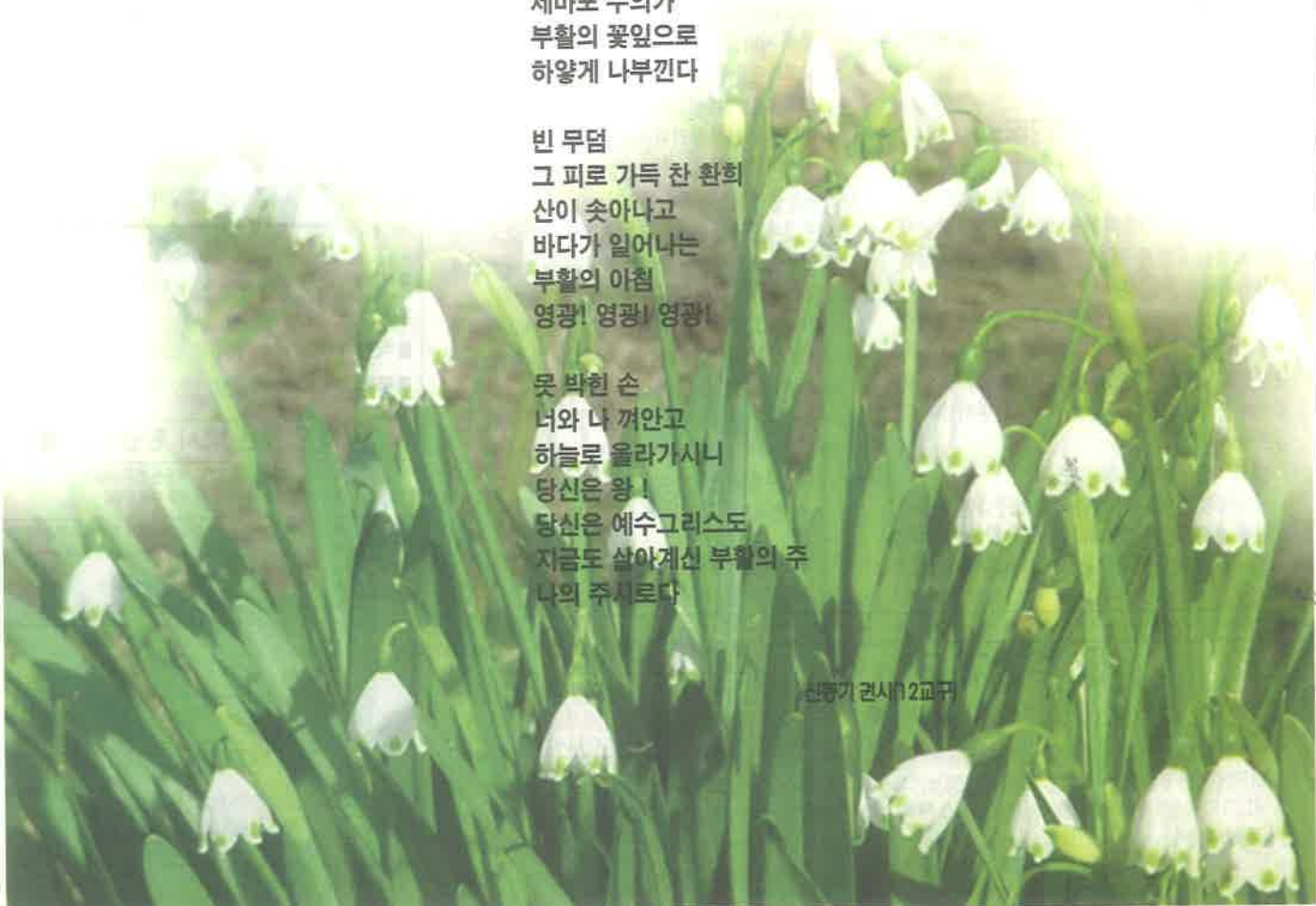
어둠과 혼돈으로
 굳게 닫힌 문
 죽음은 가두지 못하고
 사흘 만에 성전 되신
 님의 구멍 난 옆구리
 빛이 쏟아진다

하늘이 열려
 출연히 일어나
 갈릴리로 가신 님!
 세마포 수의가
 부활의 꽃잎으로
 하얗게 나부낀다

빈 무덤
 그 피로 가득 찬 환희
 산이 솟아나고
 바다가 일어나는
 부활의 아침
 영광! 영광! 영광!

못 박힌 손
 너와 나 껴안고
 하늘로 올라가시니
 당신은 왕!
 당신은 예수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의 주
 나의 주시르다

신명기 권사(12교구)



부활의 기쁨

초등부 학생(무명)

- 부활절을 맞은 개인적인 느낌부터 간단히 말해주시죠
- 예수님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 올해 부활절에 거는 기대가 있나요?
-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친구들이 많았으며 좋겠습니다.
- 가장 기억에 남는 부활절은 언제였나요? 무슨 일로 기억에 남았죠?
- 4학년 때. 처음 교회에 와서 부활절에 대해 배웠을 때.
- 부활절에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 아빠, 교회에 자주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 부활절에 서울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 예수님의 말씀을 믿자.
- 내년 부활절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 하나님, 예수님께 감사의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고 싶어요
- 세상은 부활절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 같은가요?
- 슬프고도 기쁜 기적의 날이지요
- 부활절에 만나고 싶은 사람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 할머니께, 부활절에 대해 자세히 알려달라고 할 거예요

최수우(중등부)

- 부활절을 맞은 개인적인 느낌부터 간단히 전해주시죠?
주일이 기대가 많이 된다.
- 올해 부활절에 거는 기대가 있나요?
성극과 전도 하는 것.
- 가장 기억에 남는 부활절은 언제였나요? 무슨 일로 기억에 남았죠?
작년 초등부 때, 6학년 친구들에게 전도 했던 것.
- 부활절에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금식 등을 통해 마음 속에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 부활절에 서울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있나요?
주위 사람들에게 전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내년 부활절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교회학교가 연합하여 함께 전도를 하고 싶습니다.
- 세상은 부활절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 같은가요?
단순히 달걀만 주고받는 날로.
- 부활절에 만나보고 싶은 사람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달걀만 달라고 하는 친구들,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김예미(대학부)

- 부활절을 맞은 개인적인 느낌부터 간단히 전해주시죠
올해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며 부활절을 맞게 되어 훨씬 더 실감난 부활절을 맞을듯 합니다.
- 올해 부활절에 거는 기대가 있나요?
오직 날 위해...돌아가셨고 승리하셨다!!! 해피하기만 합니다.
- 가장 기억에 남는 부활절은 언제였나요? 무슨 일로 기억에 남았죠?
집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찬양하고 파티했을 때. 모두가 예수님 안에 한 형제가 된 것을 더 실감해서 좋았어요
- 부활절에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신앙을 가지도록 옆에서 좋은 본이 되어주시고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활절에 서울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있나요?
다윗의 춤이 생각나요. 남 눈치 보지 말고 정말 주님을 마음껏 기뻐합니다. 진심으로~~온몸으로~~!
- 내년 부활절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유가 생기면 부활절 카드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내고 싶어요.
- 세상은 부활절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 같은가요?
예쁜 달걀 받는 날? 무관심도 많은 듯
- 부활절에 만나보고 싶은 사람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나보다는 하나님이 할머니 맘에 짠~하고 나타나서 내가 너의 주로다.. 말하셔서 할머니가 하나님 믿으시면 좋겠어요

소은희(청년부 76포레)

어린이 부활절 예배를 준비하며 아이들과 달걀 콘테스트를 열기 위해 분주합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부활절이지만, 부활의 의미를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고 또 다시금 깊이 묵상하게 되는 것은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할 때입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새로운 소망을 품어봅니다. 예수님! 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근대(청년부 74포레)

고난주간을 보내며 제 자신이 속해 있는 일터와 가정에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과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처진 삶을 더욱 채찍질하고 담금질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 언덕을 오르시던 주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박상훈(청년부 72포레)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기쁨에 진심으로 동참하고 싶습니다. 부활의 진정한 의미와 소중함을 경시하고 무지한 세상 속에서 더욱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사는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가족들도 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 가운데 거하도록 더욱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신 지상명령처럼 어떻게 더욱 섬기고 사랑하며 참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권영옥 권사(8교구)

죽은 듯이 메말랐던 무수한 가지에서 새싹이 나와 예수님의 부활을 찬미하듯 오색이 찬란한 자연을 바라볼 때 비록 무지한 죄인들이지만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섭리에 다시 한 번 감탄하며 할렐루야 찬송으로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저희 서울교회를 바라보시고 역대하 7:15-16 말씀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며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우리 서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여 금년 부활절에도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체험을 받으시길.

십자가 삼행시

정영연(교3)

십자가는 영원불변의 진정한 사랑이다
자기의 가치관이나 세상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그런 사랑과는 결코 비교될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이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못난 자나 잘난 자나 모두를 평등하게 만들 수 있는 십자가는 진정한 사랑이다.

정희리(교2)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때에도
자신보다는 우리들의 죄를 생각하시며
가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최희미(교2)

십자가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자기자신을 위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려 하심이라

만민에게 전도 - 선교지 소식

방기에서의 부활절



적인 역사를 주께서 일으키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신학생들의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저들이 자신의 영혼의 가난함을, 저들에게 가장 긴급히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영혼의 치료와 각성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었는데, 주님께서 많은 영혼에게 역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병을 앓고 있는 학장이 연 열혈을 참여하면서, 매시간 매순간 주님을 필요로 한다는 고백을 찬양을 통해 함으로써, 신학교의 영적갈급함의 정도를

알고선,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는 처음으로 히브리어로 된 찬양을 들으며,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아"라는 예수님의 히브리 원어만 들어도 우리 이방인에게 이렇게 큰 감동이 오는데, 유대인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도 불가사의여서 저들을 위해 간절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기도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서울교회 위에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황폐한 땅에도 부활의 계절이 다가옵니다. 성한 곳 없이 찢기신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피가 이곳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도 뿌려질 날이 멀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이들과 한 형제됨을 감사드리며
방기에서 문형숙 선교사 드림

『초대의 글』

부활이 없었다면



임상헌 장로 (임마누엘 찬양대장)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그저 그런 평범한 사람에 불과할 뿐이었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실패한 선지자 중 한 사람이 되어 석가나 공자의 자리를 넘어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2000년 후를 살고 있는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었을 것이며 급기야는 오늘날 기독교 또한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이 단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우리의 죄를 영원히 장사지내셨을 뿐 아니라 무덤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귀한 존재들이며 결국에는 우리도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존재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3년 만에 임마누엘 찬양대가 부활절 감사 찬양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적은 무리이지만 정성을 다하여 준비했습니다. 빛 되신 예수님 저편의 그림자가 되어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무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다가와 주신 예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연초부터 3개월 여간 매주 토요일 저녁 귀한 시간을 쪼개어 부활절 칸타타 "그림자들의 노래"를 준비한 지휘자 김인재 선생을 비롯한 여러 대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 성도님들을 오늘 찬양의 시간에 초대합니다.

천국일본영성

결혼식이 아닌 결혼을 준비하자!

김두일 성도(7교구)

벌써 예비신혼부부 5주 과정 교육이 다 끝났습니다. 저 역시 김두일, 이명주 예비부부는 서울교회 예비신혼부부 교육 프로그램을 제 1호로 수료한 새내기 예비부부입니다.

처음에는 의무감이 앞서서 교육에 참가하였지만, 수료한 지금은 교육받던 시간들이 아쉽기만 합니다. 이 시간들은 여러 유명 강사님들이 결혼 정보, 부부와의 대화, 부부의 성, 양가부모님들 이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결혼에 대해 서서히 눈을 뜨는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특히 저희 둘이서 동감 가는 점도 많았고, 다르게 생각하는 점도 발견하면서 서로를 많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준비하라"라는 강의가 참 좋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상견례가 끝나면서 결혼식만을 위해 시간을 보낸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도 중요하나, 결혼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가정의 열매가 결혼식보다 중요한 것을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결혼 예비학교 교육은 미래의 배우자들이 서로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셨더라도 더욱 행복한 결혼생활을 원하시면 결혼 예비학교에서 시공을 받아보셔요. 저희 예비부부가 적극 추천하고 싶네요.

저룩한 결혼을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서탐방 - 디아스포라부

북한에도 부활절이 오기를 ...



은 우리나라로 들어와 살고 있는 북한의 형제들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하다. 우리 교회는 이들을 위해 <디아스포라>반을 설치하고 올해 1월 첫째 주 개강 예배를 시작으로 매주일 오후 1시부터 모임을 갖고 있다. 현재 20명의 재적학생들과 10여명의 교사들이 함께 공동체를 꾸려가고 있다. 탈북자들의 연령은 나이 많은 할머니부터 20대 초반의 앳된 젊은이까지 다양하다. 한결같이 밝게 웃는 이들의 표정 너머엔 사실은 말 못 할 힘겨운 과거가 저마다 숨어있다. 그러나 그런

봄꽃들이 울긋불긋 피어나기 시작한 지난 4일 주일 오후 1시, 순례자 취재팀은 성경공부가 한창인 서울교회 607호 디아스포라부 모임을 찾았다. 그곳엔 진지한 표정을 한 탈북 동포 10여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배워가고 있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흩어진 백성이란 뜻의 디아스포라(Diaspora)는 북한에서 살다가 탈출하여 중국과 제3국, 혹은

경험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 가는 계기가 되고 있음을 이들의 얼굴에서 느낄 수 있었다. 올해 초부터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한 탈북 성도는 이렇게 말했다. “지난 99년 부활절에 3일 금식을 통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기에 부활절은 저에게 더없이 소중한 감사한 날입니다. 해마다 부활절이 오면 모든 행동이 조심스러워집니다. 저와 같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번 부활절이 영혼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북한에도 부활을 기념하는 그때를 하루속히 앞당겨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록 교회를 나온 지 불과 몇 달 밖에 안 되는 성도가 대부분이지만 때때로 얻는 영혼의 위로와 남은 생활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상식들을 얻을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고 이들은 말한다. 더욱이 전도사님의 말씀과 교사들의 섬김은 다른 물질적인 도움보다 더 큰 값어치가 있다고 이들은 고백했다. 성경공부를 인도하시는 박광일 전도사도 스스로 북한을 빠져나와 중국에서 제3국을 거쳐 장장 4,500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기나긴 탈출을 감행한 끝에 한국으로 왔다. 그런 만큼 누구보다도 탈북자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 “탈북자들은 무엇보다도 남한사회에서 안정적인 직장과 가정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적응하려면 남한 사람보다 몇 배 더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참으로 어렵습니다.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사랑과 나눔, 또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섬는 기도가 있다면 희망은 여전히 있습니다.”

특히 고난주간이었던 지난 주 월요일 디아스포라부는 박 전도사와 교사들의 인도로 서울 양재동의 한 공원을 찾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부활하신 의미를 되새기고 서로 친교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디아스포라부를 개설한 이래 아직 서로에 대해 알 기회가 없었던 차에 이번 야유회는 탈북성도들과 교사들 모두 영혼의 깊은 위로가 있던 시간이었다.

디아스포라부는 앞으로 북한선교의 밑거름으로 헌신하는 탈북자들을 많이 양성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공산독재와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 동포들에게는 복음화된 통일이 아니라면 통일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무장한 탈북자들이 중심이 되어 통일 이후 북한 사람들을 전도하는 데에 앞장설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거룩한 목표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전 성도들의 뜨거운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다고 박 전도사와 교사들은 거듭 당부했다. 이들의 아름다운 비전이 머지않은 장래에 실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김민철(편집부)

동정

- 이종윤 목사는 15일(목) 장로회 신학회 월례 발표회를 소집한다.
- 독남: 이영숙 성도 (14교구)
- 주간 식당봉사: 스테바희(4월11일), 당희원(4월18일)
- 금주의 식사: 원용범 집사, 김영희 집사 가정(자녀 결혼 감사)

이종윤 목사 방승설교

- TV ● 케이블 CH 42(7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162(7독교방송) 매주 수 오전 7시
- 라디오 ● HLKY 98.1 MHz(극동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7독교 방송) 생명을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 기독교 TV - (<http://www.cts.tv>)

참정권을 바르게 행사 합시다

4월15일(목)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다.

바른 지도자가 뽑히어 나라가 안정되고 번영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바른선거를 위한 기도-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타다남은 부지깽이 같던 이 나라를 세워 주시고 여기 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나 작금 우리나라는 심한 풍랑 앞의 촛불처럼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지도자들의 허물로 인한 줄 알고 자비하신 주님 앞에 불신과 불의와 불충의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권을 갖고 계신 주님.

오는 4월 15일은 이 나라 역사에 중대한 시점이 될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은 국민의 지각을 깨우시고 닫힌 눈을 크게 뜨게

하시어 진리가 승리케 하옵소서.

탄핵 시비를 가리는 국민 투표일이 아니라 명실공히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되게 하옵소서.

의와 평강의 주님.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 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섬기며 희생할 줄 아는 인품과 정책 능력이 뛰어난 후보들이 당선되게 하옵소서.

부정과 부패를 청산하고 국제적 시야를 갖고 기독교 이단인 공산주의의 뿌리를 뽑을 수 있는 용기있고 믿을 만한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옵소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비전과 지혜와 지도력을 갖춘 인물들이 뽑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이 나라를 세워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사망권세 깨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2. 4.15총선이 공명선거가 되어 바른 지도자, 비전있는 지도자가 뽑히도록
3. 제12차 김치 신학세미나에 초청된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월남의 교역자 위하여
4.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 자녀들을 위하여
5. 온 교회 성도들이 교회학교 학생이 되고 전도대원이 되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약도 :

